

## 안경원 죽이는 온라인법 완전 폐기

(근용안경·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개정안)

‘손톱 밑의 가시’로 2014년에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된 지 5년 만에 근용안경 온라인법 자동폐기... 안경 역사에 기록될 쾌거 이룩

법이 통과되었으면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을 것이 분명했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2호)이 자동폐기됐다. 올해 4월 입법에 고되며 법안 시행이 확실시되던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개정안(근용안경 개정안)’이 지난 10일 제20대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완전 폐기된 것이다. 이는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를 필두로 안경사 회원 전체의 합심이 일궈낸 결과로 안경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로 기록되게 되었다.



▲ 지난 5월 29일 대한안경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기법 개정안 관련 긴급이사회 모습.

### 안경사, 각계에 국민 시력의 중요성 설득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정부 발의로 입법 예고된 근용 안경 개정안은 의기법 제12조 5항의 ▶ ‘안경’을 ‘안경(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돌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 제12조 제6항 중 ‘안경’을 ‘안경(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돌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한다)’으로 바꾸어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일선 안경사는 크게 경악하고 보건복지부의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예고 40일간 총 15,044건의 의견을 올렸다. 이 의견 중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3건에 불과하고, 반대 의견은 절대 다수인 15,041건에 달해 국민적인 반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협 중앙회 집행부는 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복지부는 물론 각 부처의 관계요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없이 찾아 다니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집요한 설득에 나섰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국민 시력 보호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임을 주장하고, 5만여 안경사들이 서명한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며 안경사의 일관된 뜻을 강력하게 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16개 시도안경사회는 각 지역별로 관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다니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지난 6월 5일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 소속 8개 단체 45만 회원이 근용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해 안경사의 주장에 힘을 보

태기도 했다.

### 복지부서 의뢰한 연구결과도 ‘부적합’ 의견

지난 5월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한협의 김종석 협회장은 “정부가 ‘콘택트렌즈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세계적인 추세로서 국민 편의를 앞세워 유통’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은 분야별 짝이내듯 싸구려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해서는 절대 안될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2017년 말 복지부로부터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물에서 안과 교수는 ▶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 tip. 의원발의 법 정부발의 통과율은?

근용안경 온라인 개정안은 정부 측에서 제안한 정부발의라는 점에서 어느 개정안보다 시행 확률이 높았다. 국회의원의 의원발의가 아닌 정부발의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이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18년에 국회의 전체 발의안 통과율 29.2% 중 의원발의의 통과율은 약 7%인데 비해 정부발의의 통과율은 55%로 월등히 높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가 상상하고 ▶ 우리나라는 1차 의료 접근이 용이하고 진료비가 저렴하며 ▶ 정확한 피팅 절차나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할 여력이 적다며 정부 방침에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추병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현준영 교수가 참여한 이 연구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가 국민 시력보호에 미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협의 국민 시력보호를 위한 끈질긴 설득과 개정안 통과 시 안경사 면허 증 발급 불사 등 강운양면 전략으로 당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던 근용안경 개정안이 자동폐기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이번 쾌거는 1989년 국내에 안경사제도가 명문화된 이래 안경사(史) 역사에 새겨질 중요한 기록으로서, 특히 2014년 9월 근용안경이 손톱 밑의 가시라며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된 지 5년여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특별취재반

### 자동폐기된 근용안경·도수 수경 온라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문

현행	개정안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 안경(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돌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한다) -----
1.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1. (현행과 같음)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2. (현행과 같음)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⑥ 안경사는 안경(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돌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한다) --

### 클립

#### 근용안경·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주요 일지

- ▶ 2014년 09월 - 정부의 규제개혁, 근용안경이 ‘손톱 밑의 가시’에 포함되며 논의 시작
- ▶ 2016년 12월 28일 -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2018년 8월 시행 논의
- ▶ 2017년 12월 28일 -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검토
- ▶ 2018년 01월 22일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제안
- ▶ 2018년 06월 - 정부측 두 위원회에서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연론 매체서 보도
- ▶ 2018년 08월 12일 - 정부 핵심 개혁 20대 과제에 저도수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포함
- ▶ 2018년 09월 28일 - 저도수 근용안경·콘택트 온라인 판매 연구 결과물 복지부에 전달
- ▶ 2018년 12월 20일 - 안경원 첨단 6가지 장비 복원, 자동검사기 이용한 타각검사 허용하는 의기법 시행규칙 공포
- ▶ 2019년 04월 25일 - 보건복지부,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 ▶ 2019년 06월 -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40일 기간 중 안경사 등 반대 의견 쇄도
- ▶ 2019년 06월 04일 -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 ▶ 2019년 06월 05일 - 의기총, 의기법 개정안 ‘공동 반대 의견서’ 복지부 전달
- ▶ 2019년 06월 26일 -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안전 누락된 채 진행(제1차 고비 넘김)
- ▶ 2019년 07월 23일 - 국무회의, 의기법 개정안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 2019년 07월 26일 - 복지부, 의기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에 제출
- ▶ 2019년 08월 - 의기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 ▶ 2019년 11월 20일 -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 중 의기법 개정안 누락
- ▶ 2019년 12월 10일 - 제20대 정기국회 폐회, 의기법 개정안 자동 폐기

## 눈 건강에 대하여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루테인(황반)을 보호하는 안경렌즈

루티나 플러스

축하 인사말



수원시안경사회 회장 윤일영

**“변화의 시대, 전환적 업계 생태계 구축해야”**  
 소비 플랫폼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안경계를 향한 규제개혁 위협은 시차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업계 구조를 종식하고, 양질 교육을 통한 안경사 역량 강화로 업계 생태계 구축과 품격 높은 안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 폐기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집행부에 큰 박수를 보낸다.



경기 광명 안경백화점 회장 안원근

**“대한협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의거법 개정안을 막은 것은 무엇보다 대한협 협회장님과 집행부의 노고 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낭보를 듣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집행부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 전한다. 이번 집행부는 전체 안경원의 몰락을 저지해낸 실력 있는 집행부로 안경사에게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서울 구로구 글라스박스 회장 정남균

**“오프라인 문제도 이처럼 해결되길...”**  
 국내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잘 막아낸 대한협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오프라인의 과다경쟁 등 다양한 문제거리가 남아있다. 이런 문제들도 대한협이 앞장서서 훌륭히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안경사가 아끼고있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안경렌즈도매협회 회장 김영환

**“업계의 미래를 새롭게 대비합시다”**  
 안경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의거법 개정안을 저지해낸 협회 집행부와 안경사들의 노고에 업계의 구성원으로서 찬사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안경사제도 확립을 기원한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극복한 결기를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 내일 부터는 업계를 튼튼하게 내부정비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 위해 큰 행운이 있길기 바란다.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회 회장 문병연

**“폐기는 모든 안경인의 단합의 결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관한 의거법 개정안의 폐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대한협 김종석 협회장님을 중심으로 협회의 필사적인 노력과 모든 안경인들의 간절한 마음과 단합의 결과로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안보건 전문가로서 우리 안경사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 회장 안성호

**“대한협과 모든 안경사의 승리”**  
 이번 의거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는 안경원의 격정을 없애는 쾌거다. 우리 협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저지했다는 것은 국민 안 보건의 강화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유통문란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으로, 김종석 협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모든 안경사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안경렌즈 빼곤 모두 공산품되었을 것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도 시간문제... 안경사 전문성과 유통 문란 확산도 불가피 예상



▲ 세종시의 복지부를 방문한 대한협 김종석 협회장 등 임원진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모습(5월 27일).

안경원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요즘, 만약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가 합법화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경원 매출이 당장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요구하는 거센 요구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도처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시시때때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면 안경사의 전문성이 서서히 퇴색하며 끝내는 안경사의 자존감과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유통의 무질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여기에 더해 수년 전부터 라식수술에 이어 노안교정 수술이 급증해 안경사의 설 자리는 좁아지며 안경사의 권리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안경원은 그야말로 고수 업권 대부분을 타인에게 빼앗긴 채 안경렌즈 하나만 달랑 지키고 있을 일이다. 그만큼 이번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 개정안을 막은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안경사는 앞으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되는 불법 영업을 방지하지 말고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라는 거대한 개정안 쓰나미. 이번 개정안 폐기는 안경사를 사지(死地)에서 생명이 흐르는 옥토(沃土)로 안내하는 승리의 역사로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 안경원에 안경렌즈만 빼고 모두 공산품화될 뻔한 개정안의 자동폐기가 안경원을 살렸다.

개정안 자동폐기는 안경원에 천우신조

결국 근용안경이 법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기특이나 선글라스 고객이 줄어들고 공대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안경원은 튼튼한 버팀목 하나를 잃는 것과 같았을 것이

근용안경 개정안 폐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빼기 박았다.

이번 개정안의 폐기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 수년 전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물론 제2 제3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관계 요로에 적극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정부의 주요 추진 일지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 주요 일지

- ▶ 2011년 11월 22일 - 안경원만 판매하는 일명 콘택트법 공포
- ▶ 2012년 06월 23일 - 안경원만 판매하는 일명 콘택트법 시행
- ▶ 2016년 04월 29일 - 중소기업 올부즈만 수출기업간담회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논의
- ▶ 2016년 06월 19일 - 국회, 콘택트렌즈 해외 구매대행 금지법 본회의 의결 공포
- ▶ 2016년 12월 30일 -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시력검사 개정안 발의(김순례 의원)
- ▶ 2016년 12월 27일 - 법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
- ▶ 2018년 01월 22일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대토론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제안 복지부 연구용역 의뢰 후 결과물 검토 후 결정 보고
- ▶ 2019년 01월 22일 - 청와대 규제혁신 대토론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건의
- ▶ 2019년 03월 13일 - 중소기업올부즈만 대토론회, 콘택트렌즈 온라인과 전화 구매 건의
- ▶ 2019년 03월 13일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돌이 대토론회서 온라인 허용 논의

마지막후

벼랑까지 몰렸던 근용안경 개정안... 뒤집기 한판승!

정부 주요 부처에서 앞다투어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추진... 두 번의 큰 고비 넘기며 업권 수성(守城) 성공

근용안경 개정안 폐기라는 값진 결실을 수확한 대한안경사협회, 대한협 집행부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근용안경 개정안)'의 폐기를 추진하며 두 번의 큰 고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가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해 상정된 안건이 누락한 때이고, 두 번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171개 안건 중 113번째 순서로 올랐던 개정안이 상정 직전에 후순위로 밀려 누락된 때라고 말했다. 부처 중에서 입김이 센 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가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공산품화하여 일괄 처리하려는 계획이 사전 차단된 것 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릴 171개 개정안 중 유일하게 정부입법으로 올라온 근용안경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순간이 큰 고비였던 것이다. 그만큼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개정안은 폐기되기까지 수많은 곡절을 겪었다.

근용안경 개정안의 통과가 쉽게 예상되는 대표적 회의만 꼽아도 수없이 많다. 우선 ▶ 2014년 9월 근용안경이 규제개혁 품목인 '손톱 밀의 가시'로 낙인(?) 찍힌 것을 시작으로 ▶ 의료기사업 내에 근용안경 개정안 소문이 현실화되고(2016년 12월 28일) ▶ 이날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회 국정현



◀ 45만여 안경사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담긴 연명부. 이 반대 연명부는 복지부에 전달되었다.

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용 개정안이 안건으로 제안되고(2017년 12월 28일) ▶ 보건복지부가 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언론 매체에 '양안이 동일한 저도수 돌보기안경에 한해서 안전성 연구 등을 거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안경사를 긴장시켰다. 이때 언론매체들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기정 사실화하기도 했다.

뒤이어 근용 개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 때였다. 한 제안자가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현실에서 국내만 유독 콘택트렌즈가 의외기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구매를 못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콘택트렌즈와 근용안경의 온라인 여부를 연구용역을 의뢰해 얻은 결과물을 살핀 후 결정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2018년 1월 22일). 근용안경에 이어 콘택트렌즈까지 온라인 눈에 깊게 빠져든 것이다.

정부입법 개정안... 온몸으로 막았다

이처럼 근용안경 개정안이 긴박하게 추진되는 속에서 정부는 연이어 ▶ 근용안경을 '핵심 개혁 대상 2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2018년 8월 12일), ▶ 근용안경 온라인 허용 여부를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복지부에 전달되고(2018년 9월 30일) ▶ 복지부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2019년 4월 25일).

이에 전국의 안경사들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의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안경사 면허증의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 입법예고 기간인 40일간 복지부의 전자공청회에 1만 5천여 반대 의견이 답지하는 일처민 단합을 보기도 했다.

결국 근용안경 개정안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부처가 총동원되어 추진한 사안이었으며, 끝내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2019년 7월 23일)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7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복지위 상임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체계, 지구심사)→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법률안 의결 후 정부 이승의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더구나 근용안경 개정안은 행정부에서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정부입법이라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법률안이었다.

개정안 짐 내린 안경사, 불법판매 감사해야

혹자는 이번 근용안경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것을 두고 대한협 집행부가 한 소년이 네덜란드 제방 독을 막은 것처럼 안경원의 제방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다. 네덜란드 서쪽 바닷가의 할렌스파르담 도시에 설치된 제방에 작은 구멍으로 바닷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한스라는 소년이 구멍을 막아 도시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을 막았듯이 개정안 폐기가 안경원의 침몰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대형 온라인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거세게 밀고들어왔을 것이 뻔하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는 훼손되고 유통 혼란이 극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GERMANY TECHNOLOGY

# OPTOS LENS

아직도 왜곡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옵토스 양면비구면 렌즈로 더 편안한 세상을!

QUALITY 1ST 품질과 보다 나은 기술력

양면 비구면 누진렌즈는 옵토스가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일반렌즈

중양부를 제외한 안경테두리 주변은 선명함이 떨어진다.

옵토스 양면비구면렌즈

중양부를 포함하여 외곽테두리까지 선명하고 왜곡이 없다.

더 가볍게  
더 선명하게  
더 편안하게

근용안경·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의 폐기를 축하합니다.

- |   |  |   |  |  |
|---|--|---|--|--|
| <br><b>서울시안경사회</b><br>회장 일광<br>외 임원 및 회원 일동 | <br><b>경기도안경사회</b><br>회장 이명석<br>외 임원 및 회원 일동 | <br><b>한국안경렌즈도매협회</b><br>회장 김영환<br>외 회원사 일동 | <br><b>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b><br>이사장 박영화<br>외 회원사 일동 | <br><b>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b><br>회장 안성호<br>외 회원사 일동 |
|---|--|---|--|--|